

프라이드북2014



프라이드북2014 표지

2014년 한 해 동안의 이슈와 성과를 모은 [프라이드북](#) 책자로, 2015년 2월 16일에 발행되었다.

- 이북보기 <http://book.hanyang.ac.kr/Viewer/I4ODXQJKK8SX>

□

목차

- [1 도입부](#)
- [2 30가지 이슈](#)
 - [2.1 한양인재개발원](#)
 - [2.2 교육축제](#)
 - [2.3 희망한대](#)
 - [2.4 스포츠 명문대](#)
 - [2.5 설립자 김연준](#)
 - [2.6 융합](#)
 - [2.7 정부재정지원사업](#)
 - [2.8 대학 실적 지표](#)

- [2.9 대학 평가](#)
- [2.10 고시 성과](#)
- [2.11 연구 경쟁력](#)
- [2.12 취업률](#)
- [2.13 지식재산 대상](#)
- [2.14 서비스 최우수](#)
- [2.15 2015학년도 입시](#)
- [2.16 고교교육정상화](#)
- [2.17 신설학과](#)
- [2.18 입학 경쟁률](#)
- [2.19 주목받는 교수](#)
- [2.20 젊은 한양인](#)
- [2.21 재학생 수상](#)
- [2.22 기부](#)
- [2.23 CEO 배출](#)
- [2.24 동문의 힘](#)
- [2.25 주목받는 동문](#)
- [2.26 한양 여성파워](#)
- [2.27 글로벌 한양](#)
- [2.28 안전 캠퍼스](#)
- [2.29 모바일 앱](#)
- [2.30 달라지는 캠퍼스 상권](#)
- [3 부록](#)
 - [3.1 한양대 주요 광고 보기](#)
 - [3.2 언론이 주목한 '한양의 이슈'](#)
 - [3.2.1 학생부에 적힌 한 줄, 52대 1 경쟁 뚫다](#)
 - [3.2.2 1만 3,000원으로 차린 음원유통사 "세상 빛 못 본 솔직한 이야기 전달"](#)
 - [3.2.3 친구 위한 밥 한끼... 공강 1시간 알바의 작은 기적](#)
 - [3.2.4 미래차 개발 경쟁, 대학생도 한 몫!](#)
 - [3.2.5 밝아진 '단원고 가는 길'... "우리 함께 이겨내요"](#)
 - [3.2.6 한양대 미술특기자 실기고사...216대1 경쟁률](#)
 - [3.2.7 한양대 미술 실기, 태블릿PC로 채점해요](#)
 - [3.2.8 대입 무용 실기시험 '긴장 풀기'](#)
 - [3.3 한양모의고사](#)
 - [3.4 한양만의 언어로 표현해요](#)
 - [3.5 한양 애지문 프로젝트](#)
 - [3.6 서울캠퍼스, ERICA캠퍼스 포토](#)

도입부

□□, □ □□□ □□□□□!

한양대의 상징인 '사자'

주변의 요란함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며,

모든 법칙을 초월해 천하를 호령하는

용맹한 사자처럼

한양의 2014년도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온 큰 발걸음들을

여기 '프라이드'라는 이름으로 담아

더 큰 도약의 2015년을 준비합니다.

30가지 이슈

한양인재개발원

□□□□ □□□□ □□□ □□ □□□□ □□ □□□□□ □□□

한양대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한양인재개발원](#)’을 설립하고 2014년 3월 26일 개원식을 가졌다. 대학이 재학생의 취업이나 창업 활동만 지원하던 것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경력 개발을 돕는 새로운 시도다. 지난 2009년 국내 대학 최초로 글로벌기업가센터를 개설, 대학생 창업 지원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던 한양대가 또 한 번 ‘창의형 인재 양성’에 팔 걷고 나선 것이다

‘경쟁력 있는 실용인재 육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한양인재개발원은 취업·창업·리더십 교육과 학생 진로 상담을 결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과거 한양리더십센터, 글로벌기업가센터, 커리어개발센터(구 취업지원센터), 한양상담센터에 분산됐던 인재 육성 기능을 한데 묶어 시너지를 발휘하게 할 계획이다. 이로써 한양대학교는 수요자, 즉 학생의 관점에서 실용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취업/창업/리더십/상담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시켜 한양인의 종합적 경력 개발을 지원하게 되었다.

한양인재개발원 설립 목적

- 수요자(학생) 관점의 실용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을 교내에 마련
- 취업, 창업, 리더십, 상담을 연계한 종합적 경력 개발 및 지원
- 실용학풍 차원에서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교육축제

□□□, □□□ □□ □□ □□□

배움이 강의실 안에만 있지 않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남다른 현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그곳은 한양의 ‘축제’가 된다. 특히 기업이 함께 기술을 공유하고 학생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 산학협력 현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 **HY-Tech Fair** 11월 26~28일 올림픽체육관 : 한양대학교는 2014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위한

LINC사업 2단계에 선정돼 3년간 모범적인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갈 기반을 구축했다. HY-Tech Fair는 스타트업, 산학협력, 취업, 캡스톤디자인 등 4개 부문의 주요 프로그램로 구성하고 스타트업 아카데미, 창업멘토링, 기업지원 프로그램, 산학협력 협의체 소개, 우수 중견기업 박람회, 현장면접, 참여 학생 컨설팅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구직활동을 도왔다.

- **HY G.P.S 11월 19~20일 HIT** : 한양 교육성과 페스티벌(HY G.P.S, Hangang Global Paradigm Shift Festival)은 학부생의 필수 3C 역량인 창의(Creativity), 소통(Communication), 통섭(Consilience)의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및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 II)의 우수한 성과물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대학의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다.
- **JOB Discovery Festival 9월 1~3일 올림픽체육관** : 한양 잡 디스커버리 페스티벌(JOB Discovery Festival)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마련해줬다. 페스티벌은 국내 주요 대기업을 비롯해 우수 중견기업, 외국계 기업 등 150여개 기업이 참여해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펼쳤다.

희망한대

□□ □□, □□□ □□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은 1994년 12월 7일 창단해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인 [‘사랑의 실천’](#)에 발맞춰 학생, 학교, 봉사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봉사를 위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사회봉사단은 이름을 [‘희망한대’](#)로 바꾸고 출범식을 개최하면서(5월 25일) 다양하고 신속한 봉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 **“함께한대”와 함께 글로벌 홍보를** : 국내 최초 동문 사회봉사단인 [‘함께한대’](#)와 함께 2014년 7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함께한대는 동계 방학중이었던 2014년 2월 필리핀 페르나메 지역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친바 있다. 해외 현장에서는 각종 지역 봉사활동을 비롯해 의료봉사, K-pop 한류 전파, 배구 교육 전수 등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최적의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책걸상 550여개의 후원물품을 캄보디아에 보내기도 했다. (4월 12일)
- **졸업생과 재학생이 하나되어 지역에 온정을**
 - 2014년 5월 24일 왕십리 주택가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
 - 2014년 9월 29일, 제3회 함께한대 자선기금 모금 음악회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
 - 2014년 11월 8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봉사(세아봉)’ 이름으로 김장나눔 행사 개최
 - 2014년 11월 15일 한양대 근처 지역 일대에 연탄 배달봉사 총 5,100장 전달

스포츠 명문대



제38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우승

□□□□□□□□ □□!

지난 1957년 창단 이후 해체되었다가 1961년도에 재창단된 한양대학교 야구부는 2014년 9월 4일 열린 ‘제48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통산 7번째 우승이자 지난 1997년 이후 17년 만의 우승이라 어느 때 보다 더욱 값졌다.

- **우승하기까지** : 한양대학교 야구부는 총 31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서울대(6:0), 경희대(9:0), 세한대(4:1), 중앙대(7:0 콜드게임)를 상대로 연승하며 결승에 올랐고, 결승에서 동의대를 4대3으로 꺾으며 우승기를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대학의 팀타율은 3할 4푼 3리를 기록하며 올 시즌 프로야구 리그 평균 타율인 2할 9푼 1리와 비교해 압도적인 공격력을 자랑했다.
- **야구부의 자랑, MVP** : 이번 대회에서 한양대학교 야구부는 우승과 더불어 권정웅 선수(생활스포츠학부 4년)가 최우수선수상을, 최재홍 선수(생활스포츠학부 1년)가 우수투수상을, 황현준 선수(생활스포츠학부 3년)가 수훈상을, 소재환 선수(생활스포츠학부 3년)가 타격상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팀을 이끈 김한근 감독에게 감독상이, 임덕호 총장에게 공로상이 돌아갔다.
- **야구부 출신들 전성시대** : 전통 명문 야구대학으로서 야구계의 핵심 인물들을 배출한 한양대학교 야구부 출신에는 대표적으로 프로야구 구단 넥센 히어로즈 감독 김시진(체육 '77 졸), 삼성 라이온즈 감독 류종일(체육 '87 졸), 경찰청 야구단 수석코치 정현발(체육 '77 졸), 삼성 라이온즈 코치 장효조(체육 '79 졸), SK와이브스 코치 이만수 동문(체육 '82 졸) 등이 있다.

설립자 김연준

1914년 10월 21일 ~ 2008년 2월 28일

‘그의 작품세계는 순수하고 낭만이 있으며 동양의 아름다운 예술적 향취를 간직하고 있다. 고전적인 한국예술을 바탕으로 서양 음악을 잘 구사해 융합된 신선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한다.’ 1979년 5월 28일, 독일 튀빙겐의 일간지에 전날 펼쳐진 공연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다.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국 작곡가의 작곡 발표회는 청중의 아낌없는 갈채를 받았다. 독일 청중들은 그의 작품과 음반의 판매처를 알기 원했다. 이후 독일 튀빙겐 대학의 작곡가상 대상을 수상하게 되는 이 작곡가는 우리 대학의 설립자인 고() 백남 김연준 선생(1914~2008)이다. 2014년은 그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 **가곡한세기 특별전** 2014년 10월 21일 ~ 2015년 2월 28일 한양대 박물관 : 이 전시는 한국 가곡을 주제로 한 최초의 음악사 전시로 흥남파 동요 악보 원판(1933, 단국대학교 난파 흥영후전시실) 등 서양음악 도입 초기 자료, 유명 작곡가들의 친필 악보와 가곡집, 1970~8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KBS 전국 순회 가곡의 밤> 프로그램과 성악가들의 사진까지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전시했으며, ‘청산에 살리라 - 백남 김연준 선생의 음악세계’코너를 통해 선생께서 처음 작곡을 시작하였을 때 사용한 피아노와 친필악보, 가곡집, LP 음반과 함께 1980년대 중반 새해 김연준 선생 자택에 당시 음악가들이 모여 찍은 단체 사진 등을 소개했다.
- **<백남 김연준 선생 탄생 100주년 헌정 음악회>** 2014년 10월 28일 광진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 매년 한국의 음악가 기념 연주회를 기획해 오고 있는 ‘우리가곡운동본부’가 주최한 이 음악회의 정동기 대표는 “민족과 역사의식이 절실한 때 우리 나라 음악가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장기적 발전을 기여할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연준 박사 탄생 100주년 송년음악회>** 2014년 12월 28일 백남음악관 : 한양가족 모두가 참석하여 설립자님이 남긴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그의 일생을 기리며 존경과 헌정의 뜻을 표하였다.

융합

한양대학교 융합대학원

한양의 교육과 연구에 융합이 화두다. 이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진리와 지식에 대한 탐구, 세계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한양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준다.

- **고전읽기 융합전공으로 인재양성에 깊이를 더하다** : 고전읽기 융합전공은 한양대학교 교양교육의 목표인 3C(창의, 소통, 통섭)을 중심으로 다이아몬드형 인재양성의 비전에 가장 바탕이 되고 근간이 되는 고전교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준비한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단순히 읽기 수준을 넘어 고전을 ‘수행’하고 ‘융합’하는 창조적 경험을 하게 돕는다. 가을 축제에서는 ‘잘 가르치는 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고전 75선을 나누어 주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 **융합로봇시스템학과로 오라** : 다학제적 역량을 갖추고 산업간 융합 및 신산업창출을 주도할 인간 중심의 교감형 HMI(Human Machine Interaction) 시스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공학, 자연과학, 경영, 인문사회, 디자인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과 안산 사이언스 벨리의 연구진이 참여하며, 해외 대학 및 기업과의 교류는 물론 창업까지 지원한다.
- **차세대 한양융합의료 연구센터, 첫 발걸음을 떼다** : 차세대 한양융합의료 연구센터는 의료 분야와 다양한 학문간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는 센터로, 공학,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료 분야와 한 팀을 구성해 진행하는 연구를 지원한다. 2014년 초 산학협력단 R&SD(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전략센터를 중심으로 준비하여 5월에는 R&D 우수 아이디어 발표회가 열렸으며, 11월 5일 드디어 센터 오픈을 알리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 **한양예술융합센터, 예술을 넘어 대학을 풍요롭게** : 지역 및 기업공동체를 대상으로 학생주도의 문화예술 사회환원사업을 지원하고, 학과 간 융합활동을 통한 열린 교육환경을 마련하며 창작 콘텐츠 연구 개발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산하 교책연구센터로 설립(2014. 11)되어, 지역자선 음악회 등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섰다.

정부재정지원사업

□□□□ 6□□, □□□ □□□ □□ □□□

국내 대학들의 총성 없는 전쟁. 바로 얼마나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많이 선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2014년 한 해 동안 한양대는 굵직한 5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되면서 대학가의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 지난해 발표가 나서 진행된 BK21+ 사업까지 포함하면 한양대는 국내 유일의 6관왕이라 말할 수 있다.

- **대학특성화 사업(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 서울캠퍼스 5개 사업단(40억원), ERICA 캠퍼스 4개 사업단(36.5억)이 선정되어 총 76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으며, 양 캠퍼스 합산 시 CK 사업에 선정된 108개 대학 중 가장 많은 규모의 사업단과 지원금이었다. 단일 대학 복수 캠퍼스 모두 사업단이 선정된 곳은 한양대와 상명대뿐. (2014. 6. 30)
- **“잘가르치는 대학”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2013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 (2015. 1. 15)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기업과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참여대학 중 한양대학교가 유일하게 2개 캠퍼스 모두 선정 되었다. 지난 1단계(12~13) 사업에서 ERICA캠퍼스가, 이번 2단계(14~16) 사업에서는 서울캠퍼스가 선정되었으며, 평가에서는 ERICA캠퍼스가 기술혁신형 1등급인 ‘매우우수’, 서울캠퍼스는 2등급인 ‘우수’평가를 받았다. (2014. 5. 8)
- **고교 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 이 사업은 대학별 전형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종합 평가한 최초의 사업으로 대학별 입학전형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바람직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 65개교를 선정했다. 이 중 그 노력이 가장 우수한 최우수대학으로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3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한양대학교는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 **중소기업청 선정 기업가센터 주관대학** : 대학에 창업 전공학과를 개설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대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창업보육센터 연계를 통한 인큐베이팅, 멘토링 등을 추진한다. 총 6개 대학이 선정됐다.

- **두뇌한국(BK, Brain Korea)21+ 사업** : 2013년도 하반기에 선정 후 지원금이 배정된 ‘대학원생 연구역량 강화 사업’으로 7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이다.

대학 실적 지표

□□ □□□ □□ □□□ □□

꾸준한 성과로 이어지는 한양의 저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고교생 연구소’에서 전국 고교생 1,000명 대상으로 서울 23개 대학에 대한 조사 결과, 한양대는 미래 성장가능성 순위 4위에 올랐으며 대학 이미지는 ‘뚝심있게 어려운 전공책을 파고드는 공학도’로 묘사 됐다. 또한 수도권지역 고교 1~3학년 1,122명을 대상으로 진학하고 싶은 공과대학(자연계) 순위를 조사한 결과에서 서울대 다음으로 가장 선호하는 이공계 대학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 **2013 대학 기술이전 수입금, 전국 두 번째 규모 (2014. 12. 29)** : 2013년 한 해 한양대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얻은 수익이 총 298억 8천만원
- **2013년도 산학협력실적 전체 4위** : 2,195억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 **2단계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에 선정** : 지난 2009년 시작되어 지난 5년간 진행된 1단계 사업에서 연간 7~10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아 인프라를 구축한 한양대는 매년 진행된 평가에서 2번이나 최우수대학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이를 인정받아 2단계 사업에서 컨소시엄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 **‘차세대유기합성연구센터’가 2014년도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중 유일한 ‘이학연구센터(SRC)’로 선정** : 세계적 수준의 연구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 주관의 ‘선도연구센터사업’은 연간 10~20억 내외의 연구비를 7년간 지원한다.
- **중소기업청 주관 4개 사업 운영기관에 선정 (2014.5.1)** : 한양대는 ▲‘2014년 스마트 창작터’ 운영기관 ▲직장인 대상의 유효창업자 발굴형 ‘일반인 창업아카데미지원사업’ ▲‘대학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사업’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경진대회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운영기관 등에 선정되면서 청년 창업가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섰다.
- **2013 대학 창업 지원금, 한양대 2번째로 많았다.** : 총 창업 지원 금액 11억 6,300만원 ... 가장 많은 곳은 조선대

대학 평가

□□□ □□□□ □□□ □□

한양대학교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대학이다. 이러한 모습은 국내외의 대학평가 순위에서 드러나고 있다. 물러섬 없이 한발 한발 내딛고 있는 한양의 저력이 국내 대학 중 가장 큰 상승폭(QS평가 결과)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실용인재를 양성하는 목표에 맞게 산업계 평가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평가

- 2014 QS 세계대학평가, 219위 (30 ▲)
 - 국내 대학 중 가장 큰 상승폭
 - 대학 평판도 분야 약진
 - 학과별 순위에 7개 분야 진입, 토목 구조공학 분야 50위권 진입
- 2014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 아시아 29위

- 전년(36위)대비 7계단 큰 폭 상승
- 국내 7위 재탈환
- THE 2014~2015 세계대학평가 351~400위권 기록
 - 영국 글로벌 대학교육전문매체 (THE Times Higher Education) 매거진 발표
 - 국내 7위, 국내 9개 대학만이 순위 진입
- THE 2014 아시아대학평가, 59위(15▲)
 - 국내 대학 중 전년(74위) 대비 가장 큰 상승폭인 15계단 상승, 국내 7위
- 2014 '베스트 글로벌 대학교' 평가, 세계 428위
 - 미국의 저명한 언론사인 US 뉴스앤드월드 리포트 첫 평가 발표
 - 국내 8위, 국내 11개 대학만 순위 진입
- 2014 NTU Ranking, 세계 333위
 - 국립 타이완 대학 세계대학 평가, 국내 7위
- 2014 ARWVU, 300위권(301~400위) 위치
 - 중국 상하이 자오퉁 대학 발표, 국내 10개 대학만 순위 진입

국내평가

-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 7위
 - 종합 순위에서 전년대와 동일
 - ERICA캠퍼스 17위
- 2014년 청년드림대학, 최우수 청년드림대학에 선정
 - 동아일보와 채널A가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실시
 - 총 49개 대학 중 최우수는 10곳 뿐

산업계 평가 등 순위

- 2013년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 3개 분야 최우수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
 - 서울캠퍼스는 정보통신분야, 정유석유화학 부문
 - ERICA캠퍼스는 컴퓨터(SW) 분야
- 2014 기업관점 산학협력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 글로벌 산학협력 포럼에서 선정 발표
 - ERICA캠퍼스는 우수대학으로 선정
- 2013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선정 (2015.1 발표)
- 2014 전국 경영대 평가에서 6위
 - 한국경제신문 발표
- 전국 로스쿨 평가 사립대 4위/종합 5위
 - 한경비즈니스 발표

고시 성과

□□□□ □□, □□□ □□

한양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시반은 총 7개([공인회계사반](#), [국립외교원반](#), [기술고시반](#), [변리사반](#), [사법시험반](#), [언론준비반](#), [행정고시반](#)). 학교의 지원과 배려에 보답하는 것일까. 2014년 각종 자격 시험에서 한양의 약진은 눈부셨다.

- **변리사 돌풍! 합격자수 32명으로 전국 2위** : 제51회 변리사시험 결과에서 한양대 출신 합격자는 모두 32명으로 서울대 35명에 이어 연세대와 공동 2위다. 전년도 4위(19명)와 비교해도 크게 선전했다.
- **행정고시 합격자, 18명 전국 4위**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이어 18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빅4(Big4)’ 구도를 형성 응시생 수 대비 최종합격자의 비율은 월등한 편이다. 올해 행정고시에 응시한 170명의 학생 중 10%의 학생이 최종합격의 자리까지 다다른 것이다. 타 대학의 행정고시 응시자 수는 집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데에 비해, 우리대학의 행정고시 응시생 수는 한 번에 파악이 될 정도로 적은 수임을 감안하면 결과는 더욱 놀랍다.
- **사법시험 합격자, 22명, 전국 3위** : 제 56회 사법시험에서 최종합격자 204명 중 2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서울대(40명), 연세대(26명)에 이어 전국 대학 3위에 올랐다. 법조인 배출의 산실인 한양대 사법시험반은 1965년 만들어진 이후 50년의 역사속에서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임용시험에 1,300명이 넘는 합격자를 배출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 **입법고시 합격자, 전국 3위** : 제30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한양대 출신 합격자는 3명으로, 서울대(7명)-연세대(4명)에 이어 고려대와 함께 공동 3위(13.6%)에 올랐다.
- **로클릭 임용 4명, 전국 3위** : 2014년도 로스쿨 출신 신입 재판연구원 105명 중 한양대 출신은 4명으로 5명을 배출한 서울대와 성균관대 다음으로 공동 3위에 올랐다.
- **5급 기술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9명 4위, 전기와 통신 직렬에서 수석 합격자 배출** : 2013년도에도 전기직, 화공직, 일반 기계 직렬에서 수석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다.

연구 경쟁력

□□□□ □□, □□□□ □□

한양대가 최고의 산학협력 실적을 보유하게 된 것은 그만큼 학교와 연구실, 산업 현장의 연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실에서 부단히 연구에 매달리는 교수와 학생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연구하는 교수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산학협력단에서 2014 [HYU학술상](#)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HYU학술상은 세계정상수준의 연구성과를 이룩하여 그 연구업적이 우리대학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에게만 수여되는 교내 학술상이다.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박대호](#) 교수

-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참신한 접근” (다중물리 - 스케일 해석 기술 개발 / 공학상)
- 박 교수는 ‘연성해석’이라는 독창적 연구방식으로 다중물리 현상을 규명했다. 이를 통해 공학에서 복잡하게 여겨져 왔던 다중물리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재료거동 예측이 가능해졌다.

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원유집](#) 교수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성능을 300% 향상시키겠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성능 300% 향상 / 공학상)
- 2013년 7월, 소프트웨어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회의인 ‘유제닉스(USENIX) ATC(Annual Technical Conference) 2013’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인정
- 원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추가 하드웨어 탑재 없이 소프트웨어 최적화만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속도를

약 300% 향상시키는 기술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장건희](#) 교수

- “융합 학문의 가능성을 엿보다” (정보기억장치용 초정밀회전기기 기술 / 공학상)
- 정보기억장치용 초정밀 회전기기는 나노(nano) 미터 단위의 회전정밀도를 유지하는 스피들 모터를 포함한 회전기기를 말한다. 장 교수의 개발은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그 쓰임새가 날로 커질 전망이다. 장 교수 연구의 핵심은 회전기기 내부 모터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 이 과정에서 전자공학과 기계공학의 통합형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런 연구 방법이 향후 연구 개발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신승훈](#) 교수

-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화학 반응” (금속매 반응에 의한 카벤 형성과 합성적 이용 / 자연·의학상 화학)
- 2014년 2월 화학분야의 최고학술지인 ‘Accounts of Chemical Research’에 게재
- 해당 연구결과는 학문 및 공업적 측면 모두에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해당 논문은 다양한 학술 논문에 50회 이상 인용되며 세계 각국의 후속연구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경영대학 [경영학부 신유형](#) 교수

- “직원들의 충성심과 소속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How does corporate ethics contribute to firm financial performance? / 인문·사회상 경영)
- 기업의 내부윤리 확립과 재무성과상 실질적 이윤의 연관 관계를 연구한 이 논문은 경영학 분야의 최고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Management’에 게재
- 2014년 말 경영대 박사과정 학생들과 ‘팀리더와 구성원들의 적합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공동으로 연구한 신 교수의 새 논문이 또 다시 ‘Journal of Management’에 게재되었다.

한양대 교수들의 주요 연구 성과

- [조준형](#) 교수([물리학과](#))
 - 물리학과 조준형 교수팀이 나노 원자선에서 금속 및 절연체상이 공존하는 기저상태 발견
 - 물리학 분야 권위지 피지컬 리뷰 레터스지(Physical Review Letters) 11월 3일자에 게재
- [공구](#) 교수([의학과 병리학교실](#))
 - 서울아산병원 등 공동연구팀 연구 결과, 폐선암 재발하는 RB 유전자 돌연변이 밝혀
 -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폐선암 재발 예측 및 표적 약물치료 등 향후 폐선암의 맞춤형

치료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

- [김용희](#) 교수([화공생명공학부](#))
 - 비만의 원인인 지방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지방제거 유전자를 전달하는 신개념 치료

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

- 연구결과는 네이처의 자매지 ‘네이처 머티리얼즈(Nature Materials)’ 온라인판에 게재
- [송용호](#) 교수([융합전자공학과](#))
 - 스템온칩(SoC) 연구를 위한 오픈소스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플랫폼 개발에 성공. ‘2014 플래시 메모리 서밋(2014 Flash Memory Summit)’에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 저장장치 플랫폼을 처음 공개, 오픈소스로 전 세계와 경험 노하우 공유
- [전대원](#) 교수([의학과 내과학교실](#))
 -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간 질환 개선에 효능을 발휘한다는 결과 입증. 췌바이오텍

세포공학연구소와 함께 진행, 연구결과는 유럽 소화기 학회지 ‘유럽 위장관 & 간담도학 저널(Europ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 Hepatology)’에 게재

- **장동표** 교수([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 전기생체공학부 임창환 교수, 연극영화학과 이상인 교수를 포함한 연구는 뇌파로

영화 ‘별점’을 매기는 연구 진행. 2년 안에 이 뇌파측정기로 영화의 ‘별점’을 매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성명모** 교수(화학과)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고품질 배리어막기술’을 개발
 - 글로벌 소재 업체와 기술 이전 계약을 협의 중이며, 향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범용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 **하태경** 교수(의학과 외과학교실)
 - 조기위암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위암을 절제하면서 복강내 내장지방을 같이 제거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
 - 국제외과전문 저명학술지인 ‘헤파토게스트로엔테롤로지(Hepatogastroenterology)’ 9월호에 게재

취업률

JOB!

지식과 지혜가 융합된 교육을 지향하는 한양대학교는 사회의 발전에 더욱 긍정적으로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4년 공시된 서울캠퍼스의 취업률은 58.7%로 졸업생 3천명 이상 대학 중에서 6위에, ERICA캠퍼스의 취업률은 51.5%로 졸업생 2천명 이상 3천명 이하 대학 가운데 21위에 올랐다.

- **하이웍으로 현장경험 지원** : 2011년부터 시작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하이-웍’(HY-WEP, HanYang Work Experience Program)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시장에서 점차 강조되는 현장경험을 쌓도록 독려하고 있다. 특히 현장실습 참여기업은 2012년도 128개에서 2014년 187개로 늘었고, 참여학생도 첫해 156명에서 400명 규모로 2배 이상 성장했다. 프로그램 수료학생의 취업률은 전체 취업률인 58.7%보다 월등히 높은 86.6%로 나타났다.
-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 한양대학교는 2014년 제78회 의사국가고시에서 98.3%에 달하는 합격률을 보이며 서울 및 수도권 의과대학 합격률 부문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총 121명의 응시생(재학생 114명, 재수생 7명) 중에서 재학생 전원이 합격하는 저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응시자 전원이 실기시험에 합격함으로써 한양의 대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지식재산 대상

‘R&D IP Tech-Fair 2014’

한양대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다. 2013 전국 대학 지식재산(IP) 경쟁력 평가에서 당당히 종합 1위에 오른 것에 이어, 2014년 7월 4일 특허청이 주최한 ‘R&D IP Tech-Fair 2014’에서 한양대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2년 기술이전 수익 국내대학 1위를 차지한 이후 지식재산 최고의 대학으로 각인되고 있다. 한양대는 2007년부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식재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최초로 ‘HYU 홀딩스’를 설립해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식재산 프로세스를 표준화해왔다.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등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변리사, 변호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 자격증소지자 또한

전진 배치해 유망기술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전담 인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양대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총 175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이끌어 냈으며, 126억원의 누적 기술료를 달성했다. 기술이전 주요 사례로 2012년 국내 I사에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공정·회로 기술 특허를, S사에 SSD 데이터 보호기술 특허를 각각 이전했다. 2013년에는 국내 A사에 2차전지 양극활물질을 기술 이전해 향후 상용화시 총 25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지식재산이란**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학에서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매년 수많은 양질의 논문이 발표된다. 연구결과 중 상용화 가능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 대학의 지식재산으로 만든다. 대학이 만든 기술, 즉 지식재산을 기업이 구매해 상용화를 시작한다. 이 과정을 ‘기술이전’이라 부른다. 기술을 사고 파는 것. 기술은 상점에 전시된 물건처럼 정형화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기술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특허’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서비스 최우수

□□□□ □□□□ □□□, □□ □□□□□□□ □□□□ 1□

한양대가 ‘2014 한국서비스 품질지수(KS-SQI)’평가에서 종합대학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양대는 종합대학교 업종 평균인 72.6점 대비 5.4점 높은 78점을 받았으며, 서강대학교와 공동 1위다. 한양대는 최근 8년간 큰 하락 없이 꾸준히 품질 점수 상승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년대비로는 대학들 중 가장 큰 폭으로(7.8점) 점수가 올랐다. 대학도 이제는 ‘고객만족경영’의 시대다.

- **학생 만족도 제고하는 '고객만족경영'의 성과** : 연구 실적이나 취업 현황 같은 통계적 수치가 아닌 학생들로부터 조사한 교육 서비스의 수준을 수치로 환산해 평가한 결과가 1위라는 것은 한양대가 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재학생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감사실은 고객만족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수립해, 2014년부터 추진하는 중이다. 기존의 전화·대면모니터링은 물론 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HCSI(한양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본이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CS 교육은 기존의 교양 수준에서 실제 직무와 관련성을 높인 심화 수준으로 바꿔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영진 측에서 추진하는 혁신 계획들을 단과대학들과 보다 근접하게 연계해 시행하기 위해, 각 단과대학 행정 업무의 중요 보직을 맡고 있는 교직원들로 구성된 ‘CS추진위원회’, ‘CS기획위원회’ 조직들도 발족했다.
- **어떻게 조사되었나** : 한국표준협회는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1학년을 제외한 재학생 중 300명을 표본으로 선발, 일대일 개별면접조사와 온라인패널조사를 통해 ‘신뢰성’, ‘친절성’, ‘적극지원성’, ‘접근용이성’, ‘물리적환경’, ‘본원적서비스’, ‘예상외부가서비스’ 등 7가지 서비스 품질 결정 요인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번 평가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 것은, 재학생들이 학교의 본원적 서비스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한국서비스 품질지수(KS-SQI)** : 기업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게 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표준협회(KSA)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국내 유일 서비스 산업에 대한 품질 평가 지수다.

2015학년도 입시

2015□□ □□□ □□□

한양을 꿈꾸고 한양을 이루어낸 2015학번 새내기들. 그들을 뽑기까지 한양대의 입학 진행은 많은 이슈를 만들기도 했다. 외부의 거센 변화에도 흔들림없이 한양대만의 입학전략을 고수하며,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스마트한 입시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 **01 실기 평가에 태블릿 PC 활용** : 수시 사범대 응용미술교육과 실기 평가에 스마트기기인 태블릿PC를 활

용한 채점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한양대는 또 채점 교수들을 내부 심사위원을 전면 배제하고, 외부 심사위원으로 제한했다.

- **02 대규모 미술 실기, 코엑스에서 진행** : 수시 미술특기자전형의 실기 고사를 사상 처음으로, 학교가 아닌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실시했다. 이는 3,000여명이라는 많은 수험생이 학교에서 실기고사를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혼잡을 차단하고, 일반 고사실의 좁은 책상을 벗어나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험생이 본인의 기량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03 수험생 확인 절차, 시험 시작 전 완료 시스템 도입** : 국내대학 최초, 고사장 입실 직후 본인확인 완료 시스템 도입. 아예 입실 직후 수험 시작 전에 3중으로 수험생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치겠다는 것이다. 수험생이 입실 후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감독관은 수험표에 있는 바코드를 읽어 화면상의 사진, 신분증의 사진, 수험생의 실제모습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대조함으로써 절차를 모두 끝내는 방식
- **04 ‘착한 입시설명회’, 수험생·학부모와 상담에 초점** : ‘2015학년도 한양대학교 전형계획 설명회’에는 간략한 입시설명회(30분 내외)가 끝난 이후 무제한 1:1 개별상담이 진행되었다. 실질적으로 종료시간을 없앤 것. 이는 수험생·학부모가 가장 원하는 ‘맞춤 정보전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함이다.
- **05 국내 대학 최초 온라인 모의논술고사 실시** : 한양대가 주관하는 모의논술고사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른 전형 변경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모의논술로, 지방에 있는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즉, 모의논술 접수, 답안지 작성·제출, 채점, 결과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 **06 2015학년도 논술고사 교과서 & EBS교재 출제** : 평소 고교과정과 수능준비 했다면, 별도 논술고사 준비가 필요 없었다.

고교교육정상화

□□ □□□ □□□ □□□□ □□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6월 17일 발표한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에서 한양대학교가 대입전형 운영과 개선 노력이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대학별 전형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종합 평가한 최초의 사업으로 대학별 입학전형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바람직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 65개교를 선정했다. 이 중 그 노력이 가장 우수한 최우수대학으로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3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한양대학교는 3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이전의 복잡하고 다양했던 수시 전형을 간소화하고, 장학혜택을 확대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 **수시전형 간소화** : 바뀐 입시정책 중 가장 큰 이슈는 모든 수시전형에 수능최저기준이 폐지됐다는 점. 따라서 모든 수시 전형에 수능이 면제 된다. 우선선발 또한 폐지됐다. 이 기준에 맞춰 수시전형을 간소화한 것.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이 대폭 확대 되었고, 수시모집 인원은 늘어났지만 입시 요강은 더욱 간소해졌다.
- **장학금 혜택 확대 개편** : 그동안의 장학제도는 수능최저제한, 조건부장학 형태였는데, 이번엔 모든 제한을 없애고 합격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입학 장학금은 크게 다이아몬드7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된다.
- **올바른 대입전형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솔선수범** : 중고생 200여명에게 ‘선배 멘토 포럼’을 개최해 전공설명회, 전공탐색 상담회 등을 개최했고, 학부모와 교사 100여명이 참가한 ‘바른전형 자문단 포럼’을 열어 대입전형 정립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 **2014 진로·체험 박람회 개최** : ‘중학교 자유학기제 사전체험관’, ‘대입전형 R&D 기획관체험’, ‘전공체험 프로그램(전공 라운지),’ ‘진로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고, 전국에 있는 중·고교 수험

생, 교사, 학부모 및 취약낙후 지역 중·고교 3개학교(교통편 제공)가 초청되는 등 총 1만여명이 본 박람회에 참여했다.

신설학과

□□□ □□, □□□ □□

한양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ERICA캠퍼스에 국방정보공학과, 재료화학공학과, 전자공학부를 신설했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학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대학 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다하며 미래를 앞장서 가고자 함이다.

- **국방정보공학과** : 해군 기술장교를 육성하는 국방정보공학과는 정보통신과 컴퓨터공학을 기본으로 한 융합형 학과를 지향하고 있다. ‘정보통신’과 ‘국방과학’ 기술은 관련 산업분야의 발전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기에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국방정보공학과로의 진학은 기술장교로서 빠르게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교육과정은 해군 기술장교로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군사과학 관련 내용의 전공 및 교양 과목과 더불어 일반 공과대학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마련해 두 역량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했다. 산업을 앞서가는 첨단 무기 및 지휘체계를 경험한 졸업생들의 향후 국내 국방과학 분야에서 리더로 성장할 모습이 기대된다.
- **재료화학공학과** : 소재 및 부품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재료화학공학과는 기존의 재료공학과와 화학공학과가 융합된 형태로서 새롭게 탄생했다. 현재 재료와 화학 분야에서 각각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두 학과는 이번 통합을 시발점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전의 재료공학과는 지난 2012년 산업체 관점 대학평가 신소재 및 철강분야 1위에 빛나고, 화학공학과는 작년 중 앙일보 대학평가 국내 6위를 차지한 저력을 가진 만큼 두 분야의 결합은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공학부** : 기존의 전자통신공학과와 전자시스템공학과가 통합된 형태인 전자공학부는 전자 및 전기 분야 전반의 스마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융합 시스템 산업분야를 선도할 ‘글로벌 수준의 산·학·연 기반 현장 맞춤형 창의 인력양성’을 교육 기조로 하고 있다. 통합 전 두 학과의 취업률이 83%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공학인증제도(ABEEK)를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활동 관리 및 글로벌 수준의 교육여건 구축을 도모한 만큼 앞으로 전자공학부의 발전에 귀추가 주목된다.

입학 경쟁률

□□□ □ □□□□ □□□□

한양대 입학에 향한 뜨거운 열기, 입학 경쟁률은 어땠을까

- 서울캠퍼스
 - 수시 : 24.51 : 1 / 2,259명 모집에 55,378명 지원
 - 정시 : 5.06 : 1 / 1,081명 모집에 5,469명 지원
- ERICA캠퍼스
 - 수시 : 18.26 : 1 / 1,316명 모집에 24,026명 지원
 - 정시 : 5.64 : 1 / 1,051명 모집에 5,930명 지원
- **서울캠퍼스 수시모집 주요전형 최고경쟁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도가 논술전형과 학생부종합 전형 모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논술전형에서는 8명 모집에 883명이 지원해 110.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16명 모집에 538명이 지원해 33.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에너지공학과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4명 모집에 31명이 지원해 7.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ERICA캠퍼스 경쟁률 현황** : 수시 재능우수자전형 실용음악학과(보컬)이 5명 모집에 2,181명이 지원해 436.2대 1로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양대 실용음악학과의 최고 경쟁률 기록은 처음이 아니다. 2014학년도 입시의 경우 1차 수시모집 471대 1로, 정시 216.75대 1로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바 있다. 2015년 1학기부터 ERICA캠퍼스에 해군 기술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신설된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는 수시 20명 모집에 54명이 지원해 2.70대 1을, 정시 29명 모집에 41명이 지원 1.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목받는 교수

□□ □□□□ □□ □□□□ □□ □□□□ □□ □□

산업부와 미래부는 2014년 3월부터 미래 성장동력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스마트자동차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맞춤형 웰니스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첨단 미래소재 등 5개 분야에 대해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엔진 프로젝트 간 공동 추진단을 구성해 실행계획 수립과 부처 간 사업 추진방향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 2개 분야 추진단장에 한양대 교수 이름이 올라갔다.

- **미래 성장동력 추진단 단장**
 - 스마트 자동차 분야 미래자동차공학과 **선우명호** 교수
 - 지능형 반도체 분야 융합전자공학부 **송용호** 교수
- **선우명호** 교수, ‘국민 공감 우수성과 10선’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한 ‘국민 공감 우수성과 10선’에 한양대 공과대학 미래자동차공학과소속 선우명호 교수의 ‘차세대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 설계 기술 연구’가 선정됐다. 우수성과는 △분야별 우수성과 △후속연구 우수자 △기술이전 및 창업 우수기관 등 세 분야에 걸쳐 진행됐으며 선우 교수는 후속연구 우수자 부문에 뽑혔다. 국민 공감 우수성과 10선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에서도 온라인 인기투표를 통해 추려진 10개의 연구를 말한다. 온라인 인기투표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연구를 파악하고 피드백을 통한 연구자들의 R&D 방향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한편, 선우명호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7월 22일에 발표한 ‘올해 국가 R&D 최우수성과 11’에 포함되기도 했다.

젊은 한양인

□□ □□□□□□ □□ □□□□ □□□□

2014년, 무엇보다 빛나는 젊음을 무기로 세상을 뒤흔든 한양대학교 재학생들이 있다. 보다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도전정신과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꿈꾸는 끼와 열정, 지금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궁금해지는 젊은 사자들의 모습이다.

앞서 나간다

- 현대자동차 주최 제12회 미래자동차 기술공모전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에서 우승, 3회 연속 우승, 상금 1억원 획득 ... 국내 최고 수준 확인
- 레드닷 디자인 공모전(Red dot design award)에서 5,000여 개의 출품작 중 본상 수상 - 최민성(국제학부 3학년)

토론의 왕

- 제10회 전국 대학생 토론 대회 대상 - 최준호, 오장성 팀
- 제1회 전국 대학생 독서 토론 대회 최우수상 ‘사탕’팀 - 강새술, 김찬주, 류호준, 박진환, 유엘리, 이정현
- 2014 희망서울정책박람회 대학생 토론배틀 정책을 말하는 대학생 대상 - 최준호, 손솔빈
- 제4회 전국 대학(원)생 정보통신방송 토론대회 대상 박현우

스포츠 기대주

-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금메달 황영식([생활스포츠학부](#) 10학번)
- 제33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배영 50m, 100m 금메달 서현아([생활스포츠학부](#) 12학번)

재학생 수상

□□ □□□□ □□□ □□, □□□ □□□□ □□□□

2014년 한 해 동안 한양대학교 재학생들의 인내와 노력 끝에 빛어낸 성과는 어느 때보다 찬란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열의와 끈기가 돋보인다. 수상의 결실들은 단단한 뿌리가 되어 더 큰 인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IDEA 2014 디자인 공모전 수상 (박준영/테크노프로덕트디자인학과)
- 제6회 대학생 시스템 반도체 설계 공모전 대상 (김영일/공학대학원·전자공학)
- 제6회 대학생 시스템 반도체 설계 공모전 금상 (김종석, 윤진오 팀/공학대학원·전자공학)
- 인간컴퓨터상호작용 CHI 학회 학생연구경쟁부문 대상 (서경원/일반대학원·산업공학전공)
- 제9회 대학생 프로젝트 경진대회 금상 (류진걸, 송익찬, 안길승, 박주연 팀/공학대·산업경영)
- 제30회 동아국악콩쿠르 정가 일반부 금상(유기범/일반대학원 국악과)
- 미국기계학회(ASME)주최 제24회 정보저장 및 처리 시스템 부문 학술대회 베스트 트랙 페이퍼(Best track paper) 수상 (이지훈/일반대학·융합기계공학)
- 2014 하반기 COREA 경진대회 대상 (김도완, 이재욱, 오석민 팀/일반대학원·자원환경공학)
- 2014 KBS 국악경연대회 대상 (성한여름/국악전공)
- 2014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그랑프리 (박관정/예체능대·생활무용예술)
- 제3회 아시아 건축신인전 대한민국 대표 선발전 대표 5인 선발 (성태승/공과대·건축)
- 2014 전국대학생 제주관광 UCC 공모전 동영상 부문 대상 (박성용, 하윤정, 김미선 팀/디자인대·엔터테인먼트디자인)
- 서울시 주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전 금상 (김민균, 서지민 팀/일반대학원·도시공학과)
- 2014 제15회 부일성악콩쿠르 대상 (이예니/성악)
- 2014 제6회 세일한국가곡콩쿠르 대상 (이예니/성악)
- 2014 광주성악콩쿠르 대상 (이예니/성악)
- 2014 제13회 국립오페라단 성악콩쿠르 금상 (이예니/성악)
- 제5회 교육시설 디자인 공모전 대상 (신진호, 이수빈 팀/공과대·건축)
- 사이버전 시나리오 공모전 육군참모총장상 (김윤호/공과대·컴퓨터)
- 제14회 대학(원)생 무역논문대회 대상 (노지혜, 이정은 팀/국제학대학원 중국학전공)
- 2014 소셜벤처 경진대회 일반 아이디어 부문 대상 및 딜로이트 AS ONE상 (한양대 봉사단체 [십시일밥](#))

기부

28□ □□□ □□□ □□ □□ □□

학교를 향한 모교사랑 그리고 후배사랑이 2014년 한해도 끊이지 않았다. 2013학년도 통계에 따르면 총 4,543명이 기부를 했고, 그 중 동문이 앞도적으로 많은 57%를 차지했다. 물론 기업과 일반인의 기부 참여도 전년대비 증가하여 한양의 대외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밀어주고 끌어주는 한양 사랑이 2015년에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 발전기금 기부인원 : 4,543명
- 발전기금 조성현황 : 15,177,123,607원

□ □□□□□ □□□□□□□□ □□□ □□ □□□ □□□□ □ □□ □□□□□□□□.

- 윤성태 (주)휴온스 부회장(산업공학과 83학번), 총5억원 발전기금 약정 (8월 1일)
- 이범택 (주)크린토피아 회장(섬유공학과 72학번) 발전기금 5억원 기부 약정 (7월 28일)
-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 일동 8명, 학과 발전기금 2억원 약정
- 선우명호 경영부총장 1억원 약정하고 1,000만원 기부 (9월 19일)
- 민승재, 박장현 교수 각각 2,000만원 약정
- 간호학부 동문회 발전기금으로 2억원 기부 (2월 21일)
- 한금태 삼영기계(주) 회장(공업경영, 62학번), 발전기금 2억원 기부 (11월 30일)
- KB국민은행, 발전기금 1억 5,000만원 기부 (4월 24일) 2008년부터 열두 차례에 걸쳐 총 8억 3,000여만원 기부
- 김쌍수(69) 전 LG전자 부회장 발전기금 1억원 기부 (8월 4일)
- 김종배 (주)삼신 회장(기계공학과, 1960년 졸) 발전기금 1억원 전달 (2014년 12월 27일)

기계공학부의 장학기금과 발전기금으로 사용

- 남재국 (주)에프알텍 대표이사(물리학과 81학번) 발전기금 1억원 기부 (11월 27일)

한양대 의과대학 16회 동기회 6,000만원 기부 (11월 9일) 11월 9일 ‘2014 한양 의대인의 밤’ 행사에서

- 임용웅 동문(법학·64) 정문 소나무 정수 작업을 위해 6,000만원을 기부 (5월7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법학관 건축기금 등 총 2억원 기부
- 진학사, 발전기금 3,000만원 기부 (4월 7일) 2010년 발전기금 1,000만원에 이어 두 번째
- 강영오 동문(전 LA동문회 회장/토목공학·58)과 이재규 동문(현 LA동문회 회장/섬유공학·71),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4북경세계한양인의만남’에서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을 기부 (10월 17일)
- 손용근 정책과학대학 석좌교수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5월 20일) 2005년 이후 여덟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 기부
- 최형인 연극영화학과 석좌교수, 연극영화학과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 (10월 7일) 명예퇴임식 때 제자들이 모은 기금에 보태어 마련
- 노상구 동문(경영학·82), 경영대학 ‘한양동문 자녀사랑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 기부 (9월 12일)
-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한사랑봉사회’ 발전기금 300만원 기부 (8월 28일)
- 변성금 국악과 교수, KBS 국악대상 수상 금액 200만원 기부 (3월 4일)
- 한양대학교 불교학생회 동문 모임 ‘선지식동문회’가 아름다운동행 ‘선재의 선물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자비나눔기금으로 100만원을 기부 (2월 6일)
- 신진수 학생(국악·10) ‘제34회 온 나라 국악 경연 대회’에서 수상한 상금 300만원 전액을 국악과 발전기금으로 기부 (7월 14일)

CEO 배출

□□□ □□□ □□, □□□□

리더의 상징이자, 한 기업을 이끄는 CEO. ‘CEO 사관학교’라는 별칭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한양대 출신들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통계 자료를 정리해 봤다.

2013년 500대 기업 CEO 배출 대학, 한양대4위

- 5월 CEO스코어, 국내 500대기업 CEO 586명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서울대 (154명) > 고려대 (88명) > 연세대 (54명) > 한양대 (33명) 순

2014 코스닥 상장사 CEO 배출, 한양대 3번째 많아

- 5월 13일 코스닥협회 ‘2014 코스닥 상장법인 경영인 현황’ 조사 결과 발표
- 서울대(19.8%) > 연세대(9.4%) > 한양대(9.2%) 순

100대 기업 CEO 출신대학, 한양대 4번째 많아

- 4월 월간현대경영 발표... 이공계 출신 비율 절반 넘어
- 서울대(38%) - 고려대(15.5%) - 연세대(9.9%) - 한양대(8.4%) - 성균관대(4.2%) 순

국내 30대기업 CEO 출신대학, 한양대 4번째로 많아

- 5월 20일 경제전문미디어 조선비즈 실시 국내 30대 대기업 계열 182개 상장사 239명 전수조사 결과
- 서울대 72명 > 고려대 32명 > 연세대 29명 > 한양대 15명 > 성균관대 13명

10대 재벌 CEO는 이공계가 대세

- 4월 7일 금융감독원 자료, 10대 재벌 91개 상장사 대표이사 125명 분석
- 서울대 48명 > 고려대 16명 > 연세대 11명 > 한양대 9명 > 한국외대 6명 순

10대 기업 임원 중 한양대 출신은 112명

- 4월 2일 조선일보 조사,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임원 출신대학 분석
- 서울대 197명 > 고려대 150명 > 카이스트 144명 > 연세대 143명 > 성균관대 124명 > 부산대 113명 > 한양대 112명 > 경북대 102명

100대 기업 CEO 출신대학

- 7월 11일 <한경비즈니스> 주요 100대 기업 최고 경영자 프로필 전수조사 발표
- 서울대 26명 > 고려대 19명 > 연세대 13명 > 성균관대, 외대 6명 > 한양대 등 4명

국내 주요 증권사 CEO들의 출신 대학

- 4월 2일 뉴시스 기사, 국내 30개 증권사 CEO 조사
- 서울대 7명, 연세대 5명, 고려대 5명, 한양대 3명, 한국외대 2명

동문의 힘

'□□□ □□□□'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사회 각계의 출신 대학들을 보면 한양대 출신들의 활동이 돋보이는 이유는 뭘까? 왜 언론은 ‘한양대 전성시대’라고 말할까? 각종 순위로 나타나는 현황들을 살펴봤다

“한양대 전성시대” 정부 임명 기관장에 한양대 출신 약진

서울대(19명)·고려대(7명) 다음 많은 6명의 기관장 배출 ... 한양대 인재풀 부각(3월 5일자 서울신문 기사)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대학 분석. 5번째 많아

- 10월 16일 안전행정부 국감 제출 자료
- 고위공무원단(중앙부처 실·국장급, 1·2급) 1,453명
- 서울대 434명 > 연세대 150명 > 고려대 127명 > 성균관대 76명 > 한양대 75명

한양대, 현직검사 분포 4위, 경력검사 출신학교 3위

현직 검사 가운데 122명 한양대에서 배출, 경력검사 출신은 모두 15명

한양대 지난 10년간 판사 54명 배출, 전체 5위

- 8월 김진태 의원 공개, 1,482명의 판사 분석
- 서울대 788명 > 고려대 271명 > 연세대 114명 > 성균관대 67명 > 한양대 54명

현직 검사 1,933명의 출신 대학은 4번째 많아

서울대 736명 > 고려대 362명 > 연세대 204명 > 한양대 122명 > 성균관대 101명

현대차그룹 CEO 배출, 한양대 2위 (6월2일, CEO스코어 발표)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구 · 현대제철 부회장 박승하 · 현대위아 윤준모 사장 등 서울대 16명, 한양대 3명, 연세대 고려대 등 1명씩

한양대 로스쿨 2014년 신입 검사 3명 배출

- 4월 16일 법무부 임명 전체 35명 중 3명 임용
- 서울대 11명, 연세대 6명, 고려대 4명, 성균관대와 3명으로 공동 4위

한양대 로스쿨 2014년 로클릭 4명 배출

- 4월 14일 대법원 발표, 2014년도 로스쿨 출신 신입 재판연구원(로클릭) 임용현황
- 서울대, 성균관대(5명) 에 이어 공동 3위 기록

경력법관 임용자 55명 중 한양대 출신 올해 3명

- 10월 7일 정갑윤 의원 국감 자료 분석
- 서울대 28명 > 고려대 17명 > 연세대 4명 > 한양대 3명 > 성균관대 2명

주요 대기업 임원 승진자, 한양대 4번째로 많아

- 12월 15일 한국경제신문, 10개 그룹 총 198명 대상 조사 발표
- 서울대 49명 > 고려대 22명 > 연세대 17명 > 한양대 15명 > 성균관대 11명 순

삼성그룹 사장단 서울대 다음으로 많아

- 12월 9일 이데일리 조사 발표
- 서울대 8명 > 한양대, 성균관대 4명 > 연세대 3명 순

한양대 10대 기업 계열사 임원수 국내 대학 중 5위

- 10월 9일 재벌닷컴 2013년 사업보고서 기준 국내 10대 재벌그룹 대표기업 10개사 임원 2,484명 분석
- 서울대 354명 > 고려대 14명 > 연세대 166명 > 부산대 133명 > 한양대 120명(4.8%)

주목받는 동문

□□□□ □□□□ □□□□ □□□□ □□

그 어느 때보다 한양대학교 출신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2014년. 예술, 스포츠,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끼를 발산하며 열정을 불태운 한양인들이 있다. 주목받는 한양인들의 남다른 차이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 최고시청률 37.3%에 달하는 2014 최고의 화제 드라마 MBC <왔다!장보리>에서 우희진과의 알콩달콩 로맨스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받은 강내천 의 최대철(무용과)
- 사회초년생들과 직장인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은 웰메이드 드라마 tvN <미생>에서 ‘까칠한 상사’이지만 따뜻한 면모를 가진 하대리 의 전석호(연극영화학과)
- 갑상선암을 이겨내고 성대복원 수술을 받아 재기에 성공한 성악가를 그린 2014년 개봉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피노>에서 유지태가 연기한 배재철 의 실제 주인공 배재철(성악과)
- 700만 흥행의 영화 <해적>의 감독 이석훈(연극영화과)
- 재학 시절부터 국가대표 중심타자로 활약
- 한 김동수 선수가 넥센에서 6년 동안 코치 생활을 마치고 LG트윈스의 2군 감독으로 임명됨
- 국내 최초 공예품 모바일 유통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스.미’로 국내 시장 석권을 넘어 아시아로의 진출을 꾀하는 백패커 김동환(사회학과) 대표. 이 회사는 ‘굿슬립’이란 숙면유도 앱으로 국내 아이폰 유료 앱 판매 1위와 ‘2014 대한민국 앱 어워드 대상’ 수상
- 세계 4대 영화제로 손꼽히는 제39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이도윤(연극영화과) 감독의 장편 입봉작 <좋은 친구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을 이끌어 낸 이도윤 감독의 놀라운 연출력 호평
- 2014-2015 KCC 프로농구 올스타전 덩크슛 콘테스트의 우승, 인천 전자랜드 정효근 선수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개교한 연 유타대 아시아캠퍼스의 초대 총장 한인석(화학과) 동문은 미국 50개주 최고봉과 세계 7대 최고봉 중 4개 봉을 등정한 등산애호가로도 유명
- 호주 그린룸 어워드(greenroom Award) 시상식 오페라 부문 여우 조연상에 동양인 최초로 선정된 엄진희(성악과) 동문

한양 여성파워

□□□□! □□ □□□ □□□□

여성 취업의 증가는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통계청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57.8%다. 남성(56.8%)보다 2.1%높은 수치다. 20대 여성 고용률은 2010년부터 남성을 앞질렀고, 두 성별 간의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는 추세다. 이에 반해 한양대는 남성 동문의 활약상이 두드러졌다. 공과대학의 규모가 큰데다, 남성의 이공계 쏠림 현상이 심해서다. 생활과학대에서 들려온 여성 동문들의 활약상이 반가운 이유다. 한양 여성의 파워가 주목받고 있다.

생활과학대학 출신 여성 동문, 해외 명문대 교수에 잇단 임용

14명 중에 13명. 2014년 4월 생활과학대학에서는 최근 5년간 14명의 졸업생이 영문 맨체스터대와 미국 코넬대 등

의 교수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그 중 여성이 13명이었다.

- 강지경 University of Manchester (영)
- 박혜선 Louisiana State University (미)
- 하지영 University of Nebraska (미)
- 황지영 North Carolina State Univ., Greensboro (미)
- 현종한 Kent State University (미)
- 손명희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미)
- 이정은 Virginia Tech University (미)
- 조은주 University of Arkansas (미)
- 장순애 DongHua University (중)
- 문영옥 Zhejiang Sci-Tech University (중)
- 유차숙 Cornell University (미)
- 김기정 Virginia Tech University (미)
- 임언희 University of Hawaii (미)
- 조승혜 Framingham State University (미)

주목받는 한양 여성 동문의 활약

- IT기술과 공연예술의 만남을 이뤄낸 천주은 동문(일반대학원·무용학전공). 홀로그램 기술과 음악, 무용을 한 곳에 담아 주목 받은 <2014 IT융합퍼포먼스-하얀무덤>의 기획부터 출연까지 활약
- 국내 여성복 브랜드 ‘에스이폴와이지(S==YZ)’의 디자이너 송유진(시각패키지디자이너·01) 동문. ‘젠 아트 스타일 Zen Art Style 국제대회’ 여성복 신인 디자이너 부

문 대상, 파리 ‘Who’s Next Trade Show’에서 ‘Who’s Next Lounge Fresh’ 상을 수상하며 패션계에서 주목. 최근 <솔드 아웃>이란 TV 프로그램에 출연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첨단정보연구소장 한선화(화공.78)동문. 과학기술 연구정보를 수집해 가공하고 이를 다양한 기관이 공유하게 하는 빅데이터 활용 업무를 총괄한다.
- 여자프로배구 사상 두 번째 여성 감독이 된 박미희(체육.89)동문. 박 동문은 실업시절 최초로 대학에 진학한 여성배구 선수였고, 배구경기 최초의 여성 해설자였다.
-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로 유명한 초코파이 CM의 주인공 이용신(신문방송·95) 동문. 경력 11년 차인 성우이지만 최근 첫 정규앨범 발매하고 가수로의 삶을 병행하고 있다.

글로벌 한양

□□□□ □□□□ □□, □□□□ □□□□ □□

한양대의 여러 강점 중에서도 가장 주목 받는 것은 바로 ‘국제화’. 여러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고 있을 뿐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는 유학생의 수도 월등하다.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제화 역량은 한양대만의 글로벌 전략이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 유학 학생 수 : 64개국 2,000명
- 여름학교 참여 수 : 31개국 1,200명
- 어학연수생 : 48개국 2,200명

한양대를 찾는 유학생 현황

한양대를 찾는 유학생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초청 교환학생과 여름학교 참여생이 많이 증가했다.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정규과정 외국인 학생 수 (4.1 재학생 기준) | 1,343 | 1,509 | 1,699 | 1,682 | 1,655 |
| 초청교환학생 수 | 160 | 286 | 481 | 670 | 802 |
| 파견교환학생 수 | 206 | 258 | 360 | 344 | 424 |
| 국제여름학교 (영어권) | 432 | 610 | 715 | 711 | 1,135 |

※ 2014국제 여름학교 일본어권 포함 시 1,200명(총 30개국)

대학 평가에서 드러난 국제화

-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종합 7위를 했지만 세부 지표에서 ‘국제화’ 부분에서 전년도 3위에서 한 계단 올라간 2위를 차지했다. 관련 기사에서는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이 1위,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7위 등의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단순히 유학생 숫자를 늘리기 보다 입학 시험을 까다롭게 해 ‘질 관리’에도 신경을 썼다고 평가했다.
- 교육부와 법무부가 시행하는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IEQAS: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에서 2년 연속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으며,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한 뒤 이를 평가해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인증하고 있다. 인증 대학으로 선정되면 유학생 사증발급 시 심사가 간소화 되고, 정부초청장학생 제도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 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한양대학교는 언어능력, [기숙사수용률](#), 의료보험가입률, 재정건정성, 다양성, 중도탈락률 등 모든 기준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안전 캠퍼스

□□ □□□□□, □□□ □□ □!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각종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았던 2014년. 그만큼 캠퍼스 내의 안전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대학 내에서도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한편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 해였다. 이런 노력으로 한양대는 연말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캠퍼스 안전은 24시간

- 통합보안 상황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24시간 경비 체계를 최적화
- CCTV 기기 최신화하고 추가 설치하면서 총 900대 운영
- 캠퍼스 위험구역 실외 비상벨 설치 확대, 여학생 휴게실 등에는 실내 비상벨 설치

실전을 위한 모의 훈련 2014년에는 교내 25개 자위소방대를 구축하여 총 28회에 걸친 재난 대비 훈련이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1,600명이 넘는 사람이 안전훈련을 이수했다. 특히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대규모 대피 및 화재 진압 훈련이 연 2회 실시되어 캠퍼스 전체에 상황 대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다. 기존 훈련이 위험도가 높은 실험실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도서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안전인프라 & 안전문화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안전인프라 구축과 안전문화를 정착에 집중

- 인화성 캐비닛 137개소, 비상 기구함 50개소, 비상 세안 장치 190개소, 비상 샤워기

50개소, 안전 보호구함 500개소, 밀폐형 환기 시약장 20개소,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20개소 등 확보

- 소방안전수칙 부착 확대하고 흡연구역 지정 운영, 안전매뉴얼 제작해서 배부하고 온

라인 안전교육 실시, 캠퍼스 통합가스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 추진

- CCTV 업그레이드 : 카메라 화소수 높이고, 화재 신호 연동 시스템 가동

병원도 실전대비 2014년 5월 한양대 병원에서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실전대비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특 히 이번 훈련은 화재 등 재난 재해 발생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대응과 상호 공조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모바일 앱

- **접속하라! 내 손안에 한양대** : -모바일에서 만나는 한양. 입학에서부터 독서 지원까지, 삶 속에서 좀 더 가까이 그리고 편리하게 한양을 만날 수 있다.
- **한양 입학 플래너** : 한양을 꿈꾸는 수험생들을 위해 모의고사 진단, 전형찾기, 학과 정보 등 입학 관련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수험생들에게 인기 있는 필수 앱(안드로이드, 아이폰 가능)
- **궁금한양 행사한대** : 캠퍼스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공연, 행사를 캘린더 기반으로 볼 수 있는 앱. 구글 캘린더 및 페이스북과 연동하여 제보 및 일정 등록이 가능하다. 재학생이 개발(안드로이드만 가능)
- **ERICA 퀴즈대전** : 퀴즈를 통해 즐기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ERICA학술정보관에서 준비한 앱. 책과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학교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단, 한양인만 사용 가능(안드로이드만 가능)
- **셔틀콕** : ERICA캠퍼스 학생들을 위해 지하철역 등에서 캠퍼스로 오는 셔틀버스의 시간표를 통해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앱이다. 재학생이 개발(안드로이드만 가능)

달라지는 캠퍼스 상권

□□□□ □□□□□□ □□□ □□ □□

캠퍼스 주변 변화가 심상치 않다.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동문들은 캠퍼스 주변의 정든 가게들이 사라져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변화와 수요에 맞춰 새 단장을 한 모습에 기대감을 갖기도 한다. 교통의 요지로도 손꼽히는 한양대 서울캠퍼스의 경우 그 변화폭이 더 크다. 대학상권으로 한양대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

- **서울캠퍼스 정문 앞 엔터시스 ‘한양대점’** 오픈 국내 최대 규모의 외식 공간 조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엔터시스 한양대점이 연말인 12월 19일 오픈했다. 기존 왕십리역사에도 엔터시스와 CGV 등의 시설이 있었지만 학교와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생기는 만큼 학생들에게도 큰 인기다. 아직 모든 매장이 다 입점한 것은 아니지만 한양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계속해서 늘어날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존 엔터시스 ‘왕십리’ 점도 11월부터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영화 할인, 음식점 할인, 사이즈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ERICA캠퍼스 학생 할인 혜택 확대**
 - ERICA캠퍼스 총학생회는 캠퍼스와 인접한 NC백화점 안산 고잔점과 MOU를 맺고 학생들에게 할인 및 아르바이트 우선 채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학생증만 보여주면 10%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며, 시즌별로 다양한 할인 행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
 - 안산 메가박스 극장에서도 학생 할인이 된다. 학생증 제시하면 5천원에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정문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극장인 만큼 이용도 편리하고 마일리지 쿠폰도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 한양문화사랑에서 준비한 혜택이다.

밝아진 ‘단원고 가는 길’... “우리 함께 이겨내요”

디자인대학생들, 담장벽화 재능기부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 지역인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주변 담장이 벽화로 새단장을 했습니다. 세월호 여파로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한양대 ERICA캠퍼스 디자인대학생들과 안산 시자원봉사센터, 주민들이 ‘학교 가는 길 동네 담장 벽화그리기’ 재능기부 사업을 진행한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18일 <KBS>뉴스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11월 18일) 이날 연필과 붓을 들고 모인 한양대 디자인대학생 160명은 단원고 주변 연립주택 담장 5곳에 토끼, 꽃, 풍선, 나뭇잎 등을 그려 넣어 밝고 산뜻하게 꾸몄습니다. 이영재 한양대 디자인대학 교수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동네주민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동완 고잔1동장은 “벽화 재능기부를 해 준 한양대 교수 및 학생들과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양대 미술특기자 실기고사...216대1 경쟁률

삼성동 코엑스에서 수시 미술특기자 실기고사를 진행하는 모습 소개

10월 6일 <코엑스>, <코엑스>, <코엑스>, <코엑스>, <코엑스>, <코엑스>, <코엑스>, <코엑스> 2015년 수시 미술특기자 실기고사. 응시 인원은 3,243명, 합격 인원은 216명(100대1 경쟁률).

한양대 미술 실기, 태블릿PC로 채점해요

한양대 2015년 수시 미술특기자 실기고사. 태블릿PC로 채점하는 모습. 응시 인원은 3,243명, 합격 인원은 216명(100대1 경쟁률).

대입 무용 실기시험‘긴장 풀기’

2015년 10월 7일 서울캠퍼스 애지문에서 한마당으로 가는 길 중간 천막 안. 입학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홈커밍데이'에 오신 84학번 동문 선배님들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이벤트는 바로 '한양모의고사'! 즐겁게 학교와 관련된 퀴즈도 풀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도 풍풍~ 함께 풀어보실까요?

한양모의고사

즐기면서~ "풀어보는 한양 모의고사"

2014년 10월 11일 토요일. 서울캠퍼스 애지문에서 한마당으로 가는 길 중간 천막 안. 입학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홈커밍데이'에 오신 84학번 동문 선배님들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이벤트는 바로 '한양모의고사'! 즐겁게 학교와 관련된 퀴즈도 풀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도 풍풍~ 함께 풀어보실까요?

1. 한양대학교는 1939년에 개교했으며, 올해는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는 몇년도 일까요?

- ① 2038년 ② 2039년 ③ 2040년 ④ 2100년

2. 2014년 2월 기준, 한양대학교 2개 캠퍼스 및 대학원 포함 총 동문의 수는 공식적으로 몇 명일까요?

- ① 20만명 ② 22만명 ③ 25만명 ④ 27만명

3. 한양대는 2014년 정부재정 지원 사업에서 국내 유일 6관왕에 올랐습니다. 다음 중 선정된 사업이 아닌 것은?

- 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 사업)
- ②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ACE 사업)
- ③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 사업
- ④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 이외 대학 특성화 사업(CK사업), 중소기업청 기업가센터 주관대학 선정 사

업, BK21+ 사업이 포함됩니다.

4.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2013년도 발표에서 한양대는 처음으로 서울캠퍼스와 ERICA 캠퍼스를 분리 평가였습니
다, 이때 ERICA캠퍼스가 서울권 대학들을 제치고 상위권에 올라 파란을 일으켰던 순위는 몇 위일까요?

- ① 11위 ② 12위 ③ 13위 ④ 14위

5. 다음 중 한양대가 대외 평가를 받은 결과 중 잘못 되어있는 것은?

- ① 2013 전국 대학 지식재산 경쟁력 평가 1위
- ② 2012 대학 기술이전 수입 1위
- ③ 2014 QS 세계대학평가 219위
- ④ 2014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종합대학 부문 2위

6. 현재 서울캠퍼스 노천극장과 1공학관 사이에 짓고 있는건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 ① 퓨전테크센터
- ② 한양종합기술연구원
- ③ 미래자동차연구센터
- ④ ITBT 관

7. 다음 학교 관련 공식 심볼 중 현재 사용 중이 아닌 것은?



8. 한양재단은 한양대학교의 설립자인 김연준 (1914~2008) 박사를 기리는 ‘백남상()’을 2013년도 처음으로 제정 선포하고 그해 10월에 제1회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중 시상 분야가 아닌 것은?

- ① 공학상 ② 동문단합상 ③ 음악상 ④ 인권봉사상

9. 한양대는 ‘사회봉사’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1994년 국내 대학 최초로 ‘사회봉사단’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학점을 줬다.
 ② 2009년 개교 70주년 헌혈나눔 행사에서 ‘1일 최대인원 참여’ 기록으로 한국 기네스를 보유하고 있다.
 ③ 2012년 국내 대학 최초 동문사회봉사단 ‘함께한대’를창단했다.
 ④ 2014년 사회봉사단 창단 20주년을 맞아 이름을 ‘희망한대’로 바꿨다.

10. 서울캠퍼스 한마당에서 사회대로 올라가는 계단은 ‘88계단’ 또는 ‘애국한양 계단’이라고 불립니다. 다음 중 이 계단과 관련하여 잘못된 설명은 무엇일까요?

- ① 비오는 날, 좋아하는 이성과 같이 우산을 쓰고 걸으면 커플이 된다는 속설이 있다.
 ② 왼쪽 길로 다니면 A학점을, 오른쪽 길로 다니면 F학점을 받게 된다는 미신이 있다.
 ③ 처음 계단이 생겼을 때는 계단 수가 88개였지만 폭우로 인해 일부가 유실돼 현재는 85개이다.
 ④ ‘애국한양’이라는 글씨는 한때 지워졌다가 2009년축제 때 다시 칠해졌다.

'한양모의고사'에 응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모교에 대한 더 큰 애정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 정답 및 해설

- ②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는 2039년입니다.
- ④ 27만 명입니다. 한양통계연보에 따르면 정확히 271,469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캠퍼스 152,934명, ERICA 캠퍼스 54,748명, 대학원 63,78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③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 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 ② ERICA캠퍼스는 12위를 기록했습니다. ERICA캠퍼스는 안산캠퍼스의 새 이름입니다.

5. ④ 한양대는 2014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종합대학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6. ③ 미래자동차연구센터입니다. 이 건물은 한양 동문인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후원으로 건설 중이며 2015년 6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7. ③ 번 로고는 예전에 사용된 학교 공식 로고입니다. 현재는 1번 로고를 공식적인 대표 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은 '한양'이라는 글자를 변형하여 사자 얼굴을 만든 "캐릭터 마크"이며, 4번은 대학 홍보 영상 채널의 로고입니다.
8. ② '동문단합상'이라는 분야는 없습니다. 나머지 3개가 시상 분야입니다.
9. ② 당시 한양대가 세운 729명 기록은 최근 백석대학교에서 1,245명 기록을 세우면서 깨졌습니다. 언젠가 한양대가 다시 그 기록을 깨게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10. ① 지어낸 이야기로 이런 속설은 없습니다.

한양만의 언어로 표현해요

한양 애지문 프로젝트

서울캠퍼스, ERICA캠퍼스 포토